"대인시장의 겨울은 예술로 따뜻합니다"

국내 첫 재래시장 아트페어 제로 베이스 액션 아트 개막

"올 겨울 예술이 살아 숨쉬는 대인시장은 따뜻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재래시장 아트페어인 '제로-베이스 액션 아트(Zero-base Action Art·20~25일·이하 ZAA)'가 지난 20일 개막해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서민들의 삶의 현장인 재래시장이 훌륭한 미술 전시장이 됐고, 딱딱한 전시공간을 벗어난 작가들도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시장에서 창작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젊은 작가들의 모임인 '미나리'와 전남대 문화연구사업단 '공간+일상'(단장 천득염 건축학부 교수), 광주일보가 주최한 ZAA는 진시영, 안희정, 조광섭씨 등 지역 작가 120명이 참여해 600여 점의 작품을 시중가보다 20%가량 싸게 판매하는 미술 장터이다.

개막식이 열린 지난 20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 관람객과 시장 상인, 컬렉터 등 5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고, 이날에만 작품 7점을 판매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 멀티미디어 작가 권승찬씨가 상인 20여명의 얼굴 사진과 이들의 새해 소망을 플래카드에 담아 시장 곳곳에 설치한 작품이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역 대학의 미술 학도들도 톡톡 튀는 상상력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해 주고 있다. 부대행사인 '공감(空感·20~2009년1월28일)'에 초대받은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미술 전공 학생 73명이 시장 안 세탁소 등지를 갤러리로 꾸며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21일 '제로-베이스 액션 아트'가 열리고 있는 대인시장 상가 천장에 상인들의 얼굴과 이들의 새해 소망을 담은 이색 플래카드 작품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 밖에도 부대행사로 박문종, 주홍, 고근호, 신호윤씨 등 대인시장 빈점포를 얻어 작업실을 낸 작가들의 작업 모습을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open studio)'가 함께 펼쳐지고 있다. 또 참여 작가들이 제작한 신년 연하장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신년연하장'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꽃에 대한 해석'

회화 설치작가 김진화씨 초대전

광주신세계갤러리

회화 설치작가 김진화씨가 오는 2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나만의 방'을 주제로 공간을 통해 현대인의 자화상을 되짚어 보는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켄타우르스들의 전쟁'은 현대인의 무표정한 얼굴과 경계를 표현한 작품이며, 켄타우르스 별자리를 소재로 서로에게 활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 '과대망상'은 4장의 그림 속에 테이블, 의자, 꽃, 꽃병, 새장, 촛대 등의 사물을 어지럽게 나열해 인간 내면의 복잡한 정신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다.

김씨는 호남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했고, 광주와 뉴욕 등에서 7차례 전시회를 열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

2008 문화계 결산 ② 공연

올해 광주에서는 '시카고' 등 다양한 뮤지컬 작품이 공연됐으며 지역 연극계는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유네스코가 주최한 '2008어린이 동아시아공연예술제' 개막 공연 모습.

수준 높은 작품 넘쳤다

올 한해 지역 공연계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곳은 연극계였다. 한국 연극 100주년 행사와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작품이 무대에 올랐고, 소극장도 두곳이나 새롭게 문을 열었다.

또 뮤지컬 '시카고' 등 서울 공연 흥행작들이 광주를 찾아 지역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줬으며 '2008 어린이동아시아공연예술제'(이하 동아시아예술제) 등 국제 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지역의 가장 큰 공연 축제인 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좌초하면서 아쉬움을 주기도 했다.

올해 열린 국제 공연 행사는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와 동아시 예술제였다.

올해 처음으로 대구 공연을 개최하는 등 봄가을로 행사를 나눠 진행한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는 스윙글즈 싱어스와 손열음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참여, 예년보다는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정율성'이라는 타이틀과 관련한 음악회의 정체성 부분에서는 찬반논란을 낳기도 해 전반적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뮤지컬 '시카고' 등 인기

유네스코가 주최한 동아시아예술제에는 중국, 일본, 홍콩 등 6개국 3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 갈채를 받았다.

수준높은 공연들은 지역민들이 문화갈증을 풀어줬다. '시카고', '맘마미아', '노트르담 드 파리' 등 많은 뮤지컬 작품이 광주를 찾았고, 이무지치 실내악단, 피아니스트 백건우,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늘근 도둑 이야기' 등이 공연됐다.

가장 바삐 움직인 곳은 연극계였다. 광주연극제 등 정례적인 행사 이외에도 한국연극 10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전국소극장 네트워크 페스티벌이 열렸고, 평화 연극제 역시 평화연극상 제정 등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개별 극단들의 작품 활동도 활발했다. 특히 주 3일 정도 공연하던 데서 벗어나 1주일 이상 장기 공연을 진행한 것도 큰 특징이었다. 하지만 작품의 수준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일부 작품들의 경우 식상한 소재와 연출, 배우들의 수준 낮은 연기로 실망감만 안겨주기도 했다.

또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소극장 씨디아트홀과 공연 일번지, 연극인 박영진씨가 운영하는 카페 '연극촌'은 연극계의 자산으로 자리잡았으며 박윤모씨의 모노드라마 '아버지' 100회 공연과 푸른연극마을의 일본 삿포르 공연도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국제공연예술제 좌초 아쉬움

한국 오페라 100주년을 맞았지만 연극계와 달리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었던 클래식 음악계의 행보는 아쉬웠다. 베토벤 소나타 전곡연주회를 가진 첼리스트 김창헌, 모차르트를 시작으로 소나타 전곡연주 도전에 나선 바이올리니스트 박다연씨의 개인 활동은 눈에 띄었다. 그밖에 오스트리아 세계합창올림픽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광주평화방송소년소녀합창단의 소식도 낭보였다.

국악과 무용계의 움직임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국악은 '우리가락 우리마당'등 상설공연 등이 활발히 열리고 있는 가운데 빛고을국악전수관의 목요상설공연회 100회를 넘어서 눈길을 끌었다. 또 '현의 노래', '가연하비' '그린나래' 등 신진 국악그룹들의 활약이 돋보인 한해였다.

무용계의 눈에 띄는 활동이 없었던 가운데 2007년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수상작인 김미숙 무용단의 '회소'와 2005년 전국무용제 금상·안무상과 수상작인 아시안발레단의 '흔적을 남기다' 공연 등이 관심을 모았다.

올해 공연계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조직 내부의 불협화음과 광주시와의 조율에 실패하면서 불거진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의 좌초였다.

일단 광주예총 등의 참여 아래 광주아시아공연예술제(12월 30일~1월 13일)라는 타이틀로 행사가 축소돼 명맥을 잇기는 했지만 이후 조직위와 이사진 선정 등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환골탈태 해야한다는 게 지역문화계의 여론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갤러리 송년회 어때요?

12월이 되면 미국 미술관들은 분주해진다. 일년 내내 관람객들로 붐비는 미국 미술관들로서는 항상 바쁘지만 12월은 특히 그렇다. 이유는 밀려드는 '단체손님'들 때문이다. 미술관에서 그림도 보고 식사도 하며 한해를 갈무리하는 송년모임이 쇄도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미국 메릴랜드주 중심부에 위치한 볼티모어 미술관은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송년회 장소다. 미술관은 10인 이상 단체모임에 한해서는 큐레이터가 가이드를 맡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최고급 수준을 자랑하는 미술관의 레스토랑은 1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워싱턴 D.C의 미식가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다.

그렇다고 연말에만 반짝 특수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평상시에도 미술관은 가족들의 외식 나들이에서부터 비즈니스맨들의 사교모임에 이르기까지 인기가 높다. 이렇다 보니 송년모임이 많은 12월에는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이하 인스티튜트) 역시 송년모임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는 마찬가지. 100~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룸'이 7개나 되지만 12월엔 수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인스티튜트는 '미술관 송년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아예 미술관을 모임장소를 대여하는 '컨벤션 마케팅'을 개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경영전문가와 이벤트 전문가를 고용해 전시장을 일반인이나 기업들의 모임공간으로 빌려주는 것인데, 연간 매출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 특히 밸런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념일엔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벌인다.

'미술관 송년회'가 인기를 끄는 것은 미술품을 보면서 지인들과 함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색다른 체험'을 누릴 수 있어서다. 사교모임이나 송년회 하면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둘러 앉아 술과 음식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나라 송년회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물론 국내에도 미술관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립미술관인 서울 사비나 갤러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개인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송년회 마케팅을 벌였다. 갤러리로서는 모험이나 다름 없었지만 예상을 깨고 '대박'을 냈다.

평소 자주 오기 힘든 미술관에서 상사 험담이 아닌, 미술품을 주제로 동료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효과가 알려지면서 넥타이 부대들의 모임이 줄을 이었다.

최근 광주의 한 갤러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시장을 송년회 장소로 대여해 화제다. 30명 이내의 송년모임에 한해 갤러리의 '안방'을 내주는 이번 이벤트에 7~8개의 모임이 참가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한해의 끄트머리인 12월, 미술관이나 공연장에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분명 예술적 감동 못지 않은, 잊고 살았던 일상의 여유를 되찾는 소중한 체험이 될 것이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